

미래 사회의 변화와 가정과교육의 방향 탐색  
- ‘삶 중심 교과’와 ‘행복 교과’로서의 성격 재인식을 중심으로 -

왕석순\*<sup>1)</sup>

전주대학교 교수\*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ed with the future social change: focusing on the new  
recognition of the characteristic as the Subjects for Life and Happiness

Wang, Seok-Soon\*<sup>1)</sup>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exploratory study which applied environmental scanning method to analyse a change in a future society tried to diagnose a reaction ability of our education system for the change in the future society. In addition, the study tried to explore an adequate direction for Home Economics Subject to be an mandatory subject continuously toward the change in the future society.

Main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can be expected as 1) demographic change du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2) an increasing threat of a human living environment due to unexpectable natural disasters and accidents, 3) a radical progress into a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led by AI, 4) an advent of a borderless economic society and a change for jobs, 5) a change in North Korea, and so on. Our education system which mostly concentrates on education to develop constructive intelligence by halving the society and schooling as yet, however, is diagnosed as it has a paradox that can not understand an emotional competency as a target for studying.

Home Economics Subject is worth as the subject that can exactly complement a blind spot of our education system which can not respond to the future society adequately. This is because Home Economics Subject has had a characteristic as a ‘Subject of Life’ traditionally that has dealt with an overall ‘life’ of human beings, and the characteristic is favorable to develop human practical intelligence. Thus, because the ‘life’ is the main point of Home Economics Subject, it has the characteristic as a ‘Subject of Happiness’ which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develop

---

1) 교신저자: Wang, Seok Soon,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60-759, Republic of Korea  
Tel: 063-220-2331, Fax: 063-220-2053, E-mail: wangwhite@jj.ac.kr

a tendency to appreciate, a sense of empathy, and lots of pro-social behaviors that are important capacities to seek for happiness.

As Alderfer's ERG Theory is to understand human beings' behavior based on the satisfactory of human beings' hierarchical desires, it is suggested as an adequate frame for the theory to restructure the characteristic of Home Economics Subject which develops the 'capacity to seek for happiness' by focusing the 'life', into core concept and core capacity of curriculum. A follow-up study should make a connection between ERG Theory and core concept and core capacity of curriculum to explore how the theory can be reflected on Home Economics curriculum.

**Key words:** 가정교과(Home Economics Subject), 환경스캐닝(environmental scanning), 삶 중심 교과(Subject of life), 행복 교과(Subject of Happiness), 앨더퍼의 ERG 이론(Alderfer's ERG Theory)

## I. 서론

수시 개정의 성격을 적용하는 교육과정 개정 정책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교과 교육과정 개정은 2011년),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연속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고시되었다. 수시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은 사실상 전면 개정의 성격을 나타내서, 개정 때마다 교과 편제와 관련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고충도 크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정과 교육에 연계되는 여러 사회현안들을 학술대회의 주제로 다루면서 가정교과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며 가정교과의 필수교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접근을 수행해 왔다. 이는 '가정교과의 사회적 기여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방안'(2010년 7월), '가족과 사회의 행복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주도적 역할과 실천 방안'(2011년 7월), '가정교과를 통한 청소년 생활교육'(2012년 1월), '학교 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역할'(2012년 7월),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가정과교육에의 적용'(2013년 7월), '4대 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예방과 가정과교육'(2013년 11월), '가족 친화적 가치 및 일·가정 양립 역량을 키우는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강화 방안'(2014년 11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미래 학교교육 방향'(2015년 5월), 등등의 주제들이었다.

이처럼 사회현안의 대부분이 가족과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래서 가족문제가 사회 더 나아가 국정과제가 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정교과의

입지는 왜 축소되고 소홀해지고 있는 것일까?(Chae, Lee, & Yoo, 2010). 이에 대해, Chae 외(2010)는 가정교과의 정체성 혼미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단편적인 지식과 기능 습득 위주의 백화점식 내용, 또 가정생활의 개념을 가정 내에 국한시켜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실업교과로 분류되어 기능 습득에 중점을 둔 데 있다고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Wang과 Nam(2008), Baek과 Wang(2012)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교과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가정과교육은 실업교과 대신 생활·교양 교과영역으로 분류되어 생활교과라는 용어를 교육과정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문제와 가정의 문제들을 가정교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거나,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은 여전하다. 대부분의 이미지는 사람이 과거에 겪은 경험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형성되어서, 구체적으로 "진실인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반응한다. 따라서 인간 행위는 지식과 정보보다는 인간 자신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Wang & Nam, 2008). 사실이어도 또는 사실이 아니어도, 이미지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정교과가 직업교육적 이미지를 가진 실업교과 대신, 교양교육적 생활교과로 분류되었어도 가정교과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여성편향의 가사 기술 전달의 성격을 가지는 교과라는 이미지가 남아있고(Baek & Wang, 2012), 이런 이유로 실제와 다르게 가정교과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가족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현안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적인 학교교육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점도 가정교육의 가치를 낮추는 중요한 원인(Wang, 2013a)이다. 대중들은 물론, 심지어 교육의 전문가들조차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역량, 즉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역량들이 모방과 본능을 통해 저절로 발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학습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족과 가정생활과 관련된 역량들은 공적 교육의 대상으로 채택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도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가정생활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며 이에 의한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재앙으로 분석되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주원인이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 결과(Wang, 2009)는 이에 대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 미래사회에서 부딪히게 될 엄청난 문제들(테러, 가난, 자연 파괴 등등)에 대한 대응이 가정생활에서 기르게 되는 다양한 역량들인 배려, 돌봄, 사랑과 같은 역량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가정생활을 다루는 교과의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도록 견인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존·비속 살해 및 유기, 방치와 관련한 끔찍한 범죄들이 어린 시절의 좋지 못한 보살핌의 수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강한 가정의 기능 회복'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案)'(2016년 3월 29일)에서도 우리 사회의 현안을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야기 시키고 있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환경 스캐닝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로 야기된 교육적 요구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미래사회의 변화로 야기된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대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미래 사회의 변화로 야기된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가정교육이 어떤 교육적 가치를 발휘하여 담보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가정교육의 성격이 가진 교육적 가치와 그 당위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사회에서 요

구하는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함의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정교육의 성격을 충분히 포함하여 가정교육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특정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의 전문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를 표방한다. Chae, Park, Kim과 Han(2011)은 질적 연구는 전문성을 지닌 연구자가 가장 중요한 연구도구가 되며, 연구자의 전문적 판단이 중시되는 연구 유형을 질적 연구라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자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거한 선택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와 공식적인 문서인 국가수준의 가정교육과정 문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문헌 해석적 방법에 의거해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연구자의 학술적 경험의 축적에서 비롯된 서술적(敘述的) 내용도 포함하여 연구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 이 연구의 초고를 한국가정교육학회의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2015년 5월)에서 발표하여, 가정교육학 관련 2인 전문가의 토론 의견 및 청중의 토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심사과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적 연구가 가진 해석과 의미 규명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 지식의 결과를 보완하고자 노력하며 3차례의 수정과정을 통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 II. 교육의 변화를 견인하는 미래 사회의 변화들

### 1. 미래사회의 예측

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다(Lee, Baek, & Lee, 2013). 그러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예지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함으로써 대응하거나 미래비전을 세우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연구의 출발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적용하는 방법인 환경스캐닝(environmental scanning)을 통해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하여 보도록 한다. 환경스캐닝은 본격적인 미래 연구 이

전에 먼저 외부 환경을 스캔하여 변화의 신호를 찾아보는 방법이다. 환경스캐닝에 주로 사용하는 틀은 STEEP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과 자원(ecology), 정치(politics)가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틀에서 다양한 정보를 모아 변화의 트렌드로 떠오르는 이슈를 찾아내어 미래연구를 수행할 준비를 한다. 이들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변화를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과 거미줄같이 복잡하게 관련되면서 상호관련성에 의해 상상도 못할 거대한 변화를 야기시키기도 한다(Jang, 2014).

Lee et al.,(2013) 와 Jang(2014), 그리고 Kwak(2014) 등의 선행연구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한 설명들을 환경스캐닝의 방법으로 재구조화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위의 <Table 1>로 통찰된 미래사회의 변화들은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기반이 되며, 좁히면 교육 분야의 미래 대응을 위한 기반이 되며 특히 이 연구의 주제인 가정교육의 미래 방향성 논의를 위한 기반이 된다.

## 2. 현실화된 사회의 현안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적 요구

위의 <Table 1>에서 예측된 미래사회의 여러 메가 트렌드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트렌드들은 새로운 교육적 요구로 제안되고 있다. 현실화되어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사회현안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이들 다섯 가지 요인들은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들 요인들이 상호 복잡하게 관련되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호관련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53조원을 쏟아부었으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3명을 밑돌고 있어서(Chosun Ilbo, 2014),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반면 평균 기대 수명은 급상하여 1960년 55.3세에 불과하던 평균기대수명은 2015년 81.8세가 되었다(OECD, 2015).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우리의 인구구조는 고출산·고사망의 피라미드형에서 저출산·저사망의 항아리형으로 변화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요구되지만, 특히 교육 분야의 중심적 역할이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교육에 새롭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출산의 주 원인을 분석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어려운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Wang & Lim, 201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성, 연령, 세대, 가족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묵인하거나 간과해왔던 여러 가치들이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을 주책임자로 인식하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가족문화, 핵가족만을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들을 변화시켜야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Jun & Oh, 2010).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교육에서 가족친화적 가치를 기를 수 있는 교육, 보다 근원적으로 양성평등한 시각에서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생활교육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둘째, 예측불가능한 각종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 사고들,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결과들로 인해 삶의 위협성이 더욱 증대되

Table 1. Future prospects through environmental scanning\*

| Domain     | Megatrend     | Main drivers               |
|------------|---------------|----------------------------|
| society    |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변화, 다문화가족 증가 |
| economy    | 경제환경의 변화      | 저성장시대, 시장 확대, 직업 변화        |
| politics   | 국제 정치환경 변화    | 다원화사회, 지구촌사회, 북한의 변화       |
| technology | 과학, 정보통신기술 발전 | 기술혁신, 유비쿼터스 사회             |
| ecology    | 환경, 자원문제      |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자원부족          |

\* thesis restructuralization of Lee et al.,(2013) p 31 & Jang(2014) p39 & Kwak(2014) pp14-18

어 생명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안한 자연재난이 빈발하고 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사회 일대를 휩쓴 쓰나미 현상, 중국과 네팔사회를 초토화시킨 지진들은 인류의 과학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예보조차 어렵다. 지구 온난화 현상과 환경파괴로 인해 나타날 각종 재앙들로부터 자유롭기도 어렵다. 더구나 인간이 인간에게 스스로 가하는 잔인한 폭력과 테러 및 각종 사고들로부터 인간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우리 교육에서는 이러한 각종 사건과 사고, 재난들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아에서 고교단계까지 발달단계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Table 2>참조).

이같은 안전교육의 중요성도 동의하지만, 생명을 위협받는 환경적 변화와 관련한 사회변화가 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적 요구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마음의 힘, 즉 각종 재난과 사건 및 사고에 대해 개개인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마음의 힘이 있다고 사료된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은 인간의 책무성의 발휘로 예방이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구성해 가기 위한 적극적인 생활교육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예측이 어려운 각종 재해나 재난 등에 대해 교육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하버드대 심리학과 베일런트(Vaillant)교수의 30년 중단연구 결과를 살펴보면(Vaillant, 2010),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 중 노년기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성인들의 공통점은 '성숙한 방어기제'였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에서 행복한 노인들이 가진 힘은 바로 '마음의 힘'이었다. 이처럼 위협받는 생활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삶을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주어야 할 역량은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로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구성해 가도록 노력하는 생활교육과 더불어 성숙한 방어기제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의 역량'이다. 교육부의 안전교육 표준안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셋째, 세기적인 인간과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보듯이, 미래사회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급진전할 것이다.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이라는 획기적인 지식혁명을 통하여 최근의 유비쿼터스 사회로 변환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경험의 틀이다. 이로 인해 국경없는 경제시대가 도래하였고,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근무문화도 확장된다. 유비쿼터스 사회가 정착될수록 우려와는 달리, 제도화된 일터에서 해방된 인류는 오히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지내는 시간을 더욱 확대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거나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잘 지낼 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Wang, 2013b). 따라서 친밀한 정서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인관계능력과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교육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국경없는 경제사회의 도래 및 직업의 변화이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발달로 경제는 국가 간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 국경없는 경제사회의 도래로 인해 한 국가의 경제 현상은 거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소비의 영향력은 지구촌으로 광대하다. 경제의 변화는 직업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2030년대의 직업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변화는 도덕적 생산자와 소비

Table 2. 7 Safety educational standards for school safety education\*

| Domain     | Detailed Contents   |
|------------|---|
| 생활 안전      | 시설 및 제품 이용 안전(시설안전, 제품안전, 실험·실습안전, 식품안전 포함), 신체활동 안전(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
| 교통 안전      |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안전  |
| 폭력 및 신변안전  |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가정폭력   |
| 약물 및 사이버중독 | 약물중독(마약류, 흡연, 음주, 고가페인식품), 사이버 중독(인터넷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                                |
| 재난 안전      | 화재, 사회재난(폭발 및 붕괴사고, 각종테러사건, 자연재난(홍수·태풍, 지진, 대설, 한파, 낙뢰, 폭염, 가뭄, 황사와 미세먼지))        |
| 직업 안전      | 직업안전의식,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직업병,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정리정돈 및 보호구착용 등)                          |
| 응급처치       | 응급처치의 이해와 필요성,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치  |

\* thesis restructuralization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The Ministry of Education(2015).

자를 교육할 것을 교육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덕적 소비자의 존재는 과잉소비와 그에 따른 환경문제를 증대하여 결국은 도덕적 생산을 이끌어 내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공동체를 위한 소비생활교육(M. S. Park, 2012)은 국경없는 경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교육적 요구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직업과 100세 이상의 생애 전반에 대해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교육에서 길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복한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북한사회의 동향이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시기에 대하여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의 조직에서 교육 분야도 빠져서는 안된다. 현재 다문화교육의 한 유형에 탈북이주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분야가 이에 대한 대응교육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은 동일한 것이 될 수 없다. 통일에 대한 개념, 통일 후의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을 위한 준비로 서로 이질적이거나, 또는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을 기반으로 한 생활교육이 방법론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III. 우리 교육의 미래사회 대응 능력 진단: 지육교육을 답습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우리사회는 “학교의 일등이 사회의 일등과 다르다”는 것을 여전히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의 무용론’이 힘을 얻어도, 또 교육의 본래 목적인 전인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교육은 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지식 습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동시에 사회의 공적 노동부문에서 중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였고, 유비쿼터스 환경의 진전으로 사회 환경이 변화하였고,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무한 경쟁 경제사회와 북한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습자의 역량 개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지적 능력 개발과 공적 노동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기술 능력 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교

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교육의 전통을 답습하는 근본적인 논리가 무엇인지 분석해본다.

#### 1. 지능의 다원론을 외면하는 교육 현실

비네(Binet)의 지능 검사도구가 개발되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는 인간의 지능이 정보를 처리하는 단일차원의 능력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부터, 지능은 서로 구별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능력이라는 견해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능검사도구를 개발한 웨슬러(Wechsler)는 지능을 “개인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종합적,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전에 제안되었던 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면서 지능에 지적 요소뿐 아니라 성격적 요소, 정서, 사회성, 운동능력, 감각 등을 포함시켜 폭넓게 개념화하였다(Jeong, 2015). 다차원적인 지능에 대한 개념을 수용한다면, 학교교육이 개인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개발시켜 개인의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것이며, 개인의 역량은 인지적 요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다양한 발달 영역(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사회성 발달)을 모두 망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인교육의 이념과 동일한 것이다.

가드너(H. Gardner)도 지능은 서로 배타적인 여덟 가지의 지능이 존재한다는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하여 복합적인 지능의 본질을 주장하면서, 학교에서 이같은 지능의 다양성을 반영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른버그(Sternberg)도 지능은 ‘구성적 지능’, ‘경험적 지능’, ‘상황적 지능’과 같이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세 가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구성적 지능’은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전통적인 지능 검사에서 측정하려는 지능과 매우 유사하다. ‘경험적 지능’은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하여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 ‘상황적 지능’이란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관련한 지능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능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으로서 학교에서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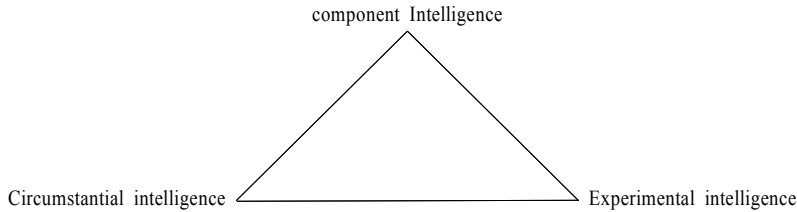


Figure 1. Sternberg's triarchic theory

지 못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능력이다. 스텐버그는 인간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보다 실용적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Han, 2005).

학교교육의 역할이 개인으로서 혹은 사회인으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여 자신이 소속한 사회에서 적응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이제부터의 학교교육의 중점은 이제까지 학교교육에서 별 관심을 가지지 못해 온 지능의 영역인 경험적 지능이나 상황적 지능을 계발하는 것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한 성인에게 학업적 지능과 실용적 지능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고려하거나, 또는 성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준비시키는 것도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고려한다면, 학교교육은 학업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상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Wang, 2013b). 즉, 구성적 지능의 계발에 치중했던 교육의 전통에서 벗어나, 경험적 지능과 상황적 지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학교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육혁명(Wang, 2013b)이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목적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용적 지능을 외면하고 고전적인 지능개념으로 제한된 지능 계발, 즉 구성적 지능 계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 2. 핵심역량으로 '정서역량'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개발 관점은 교과중심 교육과정 개발 관점에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도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고 표방하였다. 여기에서 핵심역량이란 생애능력, 핵심역량(Lee et al., 2013) 등의 개념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 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개념이며, 향후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의 삶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을 말한다(Lee & Kwak, 2013).

Lee 외(2013)는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를 개인적 역량, 학습역량, 사회적 역량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Lee 와 Kwak (2013)은 인성역량,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이 핵심역량을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개념화 한 것은 적절하지만, 핵심역량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전제한 것(Lee & Kwak, 2013)과 다르게, 인간의 역량에서 마음의 능력을 누락시키고 있다. 미래사회의 변화로 요청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 ‘마음의 힘’ 즉 ‘정서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정서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누락시키고 있다.

미래 사회의 변화가 교육에 요구하는 가장 중점적인 역량이 ‘정서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정서가 학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정서가 학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서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를 ‘자연주의 신화’라고 한다(Jeong, 2013). 또한 정서영역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에 공적영역에서 주로 필요한 능력인 지적 영역이나 기술적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학습의 우선순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인간에게 정서적 영역의 문제는 폭력, 살인, 도박, 각종 중독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특히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성장이나 변화의 필요성으로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공적인 영역의 교육에서 정서영역은 학습의 대상으로 취급되지도 못했지만, 학습의 영역으로 진입

한 경우에도 학습의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인간의 여러 문제적 정서행동(분노, 자살, 폭력, 살인, 중독행동 등)은 정서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 20세기 중반이후에 나타난 심리학 분야의 놀라운 진보를 통하여 모성애나 부성애조차 사회화의 결과라는 연구결과들이 정서 역시 학습의 대상임을 입증하면서 정서 교육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있다(Wang, 2013b).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학습자를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학습자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가 교육의 수단이 된다면 우리는 지적인 역량은 물론이고, 정서역량의 강화를 교육의 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인성이란 신체, 인지, 정서·사회적 역량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인성교육의 개념을 역량 개념으로 연계할 때, 정서영역을 누락해서는 안된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세 가지 인간의 능력인 지적인 역량, 신체적 역량, 정서적 역량의 상호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대학교육을 포함한 성인교육 이하인 초등과 중등교육 단계에서 정서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미래의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학습자에게 우리교육이 다루어야 할 핵심역량은 다음의 <Table 3>과 같이 재개념화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IV. 미래 교육의 요구를 담보할 수 있는 가정교육의 교육적 가치

미래사회의 변화로 인해 교육의 혁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우리 교육은 인간의 지능에 대한 다원론적 개념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인간의 정서를 학습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여전히 과거 교육적 풍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

하다. 가정교육은 교과의 하나로 현행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제에서 미래 교육의 요구로 발생할 새로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교과로서의 가정교육이 가진 고유한 성격은, 우리 교육이 현재 상당부분 놓치고 있는 다양한 미래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가정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당위성을 가정교육의 성격을 중심으로 규명해 보도록 한다.

##### 1) ‘삶 중심의 교과’인 생활교과의 성격에 대한 재인식

가정과의 성격과 범주를 주지교과나 예체능교과와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생활교과로 규정하는 것은 자명하다(Jeon, 2014). 가정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 그 자체를 다루면서 인간의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항구불변의 조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들의 현재 및 미래의 생활능력을 길러 주며, 이를 실천적 체험을 통해 강조하는 본질적인 ‘생활 교과’이다(Jeon, 2014). 따라서 Jeon(2014)은 가정과의 교육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도 매우 필수적인 교육적 접근인 생활교과로서의 자부심을 주장하는 것이 가정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 Wang (2003)도 여러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가정교과는 자립적 생활인을 양성하기 위한 생활교과로 정의하였다. 또,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성격에서 가정교과는 ‘생활교과’임을 기술하였으며, 2009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교과 편제에서 생활교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가정교육의 실천교과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지만 (Chae, et al. 2011), 가정교육이 학습자의 가장 근접한 환경인 가족과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교과와 구

Table 3. 3 Domain of Core competencies for Education\*

| Domain      | Component factor of Core competencies               |
|-------------|---|
| 정서·사회성 역량** | 자아정체성, 자기 이해, 자기조절, 자존감, 대인관계능력, 이해심, 배려, 돌봄 등으로 구성 |
| 지적 역량       | 창의적 사고능력, 학습역량으로 구성                                 |
| 신체·기술역량     | 조작적 기술능력, 신체조작 능력, 정보통신기술능력으로 구성                    |

\* thesis restructuralization of Lee & Kwak(2013)

\*\* 정서능력의 기반인 자기이해 능력은 2살 이후 자기 자신을 인지하게 된 이후 타인에 대한 능력으로 확장되므로, 정서· 사회성 역량으로 명명함.



분되는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한다면, 가정교육이 '생활교과'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가정과학 과목의 목표에서는 “가정생활 각 영역에 관련되어 사회에서 개척된 여러 직업을 탐색하여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생활의 역량을 길러 개인, 가족, 나아가 사회 공동체의 삶의 질을 주도하여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고시하여 가정교과가 삶의 기반인 생활을 위주로 하는 교과이며, 행복한 삶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것을 교과의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고시하였다. 그렇다면, 생활교과가 가지는 특성은 무엇인가? 가정교과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요구를 담보하기 위해 '생활교과'의 성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생활교과인 가정교과는 구성적 지능 계발에 치우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는 점이다. 경험적 지능과 실용적 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가 바로 '생활교과'이며, 그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가정교과이다. 생활교과인 가정교육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광범위한 경험을, 교과에서 다루는 여러 지식체계(예:영양학적 지식, 시간 관리 등)에서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과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보면서 그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하는 것을 교과의 목표로 한다. 또, 학습한 지식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 보면서(예: 6대 영양소를 골고루 적용하여 식사계획하기 등) 학생은 경험적 지능을 발달시키도록 학습하기도 한다. 상황적 지식을 예로 들어본다면, 교과에서 배운 육이와 관련한 지식(예: 수유시간과 계획)이 내 동생이나 주변의 아기에게 모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예: 위장의 크기에 따라 수유 간격과 양 조절이 필요함)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상황적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개인이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계발이 필요한 인간의 지능은 단편적인 정보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성적 지능이기 보다 경험과 상황대처를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실용적 지능이다. 생활교과인 가정교과는 청소년의 친숙한 생활을 대상으로 이같은 실용적 지능을 청소년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해하며 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교과이다. 실용적 지능이 성인의 삶에서 가지는 유용성을 수용한다면, 생활교과가

교과로서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교육과정 전반에서 생활교과의 위상을 논리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 2) '정서 역량'과 연계된 '행복 교과'로서의 성격 재인식

'정서 역량'을 학습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데, 매우 보수적인 우리 교육의 전통과는 다르게, 심리학 분야에서는 최근 학교 사회가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긍정기관으로 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Kwon(2008)은 학생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기관으로서 학교가 변화해야 하며, 그 조건의 하나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은 학생들의 사회적 적응 뿐만 아니라 개인적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정서역량을 중심으로 한 학교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행복 정부'를 슬로건으로 주창하면서, 행복은 이제 우리사회의 주요한 어젠다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교육 분야도 행복교육이 주요한 정책 어젠다로 자리잡으면서,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만일, 학교가 행복교육을 실천하려는 긍정기관으로 새로이 출발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교 활동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교육과정의 개혁이다. Noddings(2007)는 행복을 실제 삶의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교육이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경험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yubomirsky(2007)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적 기질이 50%이고, 여러 가지 양질의 환경 요인이 10%에 달하지만, 이외에도 중요한 요소가 인간이 취하는 의도적 활동, 즉 연습을 통해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4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이 수행하는 의도적인 활동을 통하여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무려 40%에 달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행복감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행복이 가져오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순기능을 고려할 때, 그리고 행복이 의도적인 활동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고려할 때, 우리는 교육에서 행복한 삶의 성취에 목표를 두는 교과의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행복한 삶의 성취에 목표를 두는 교과로 어떤 교과에 주목해야 할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3,683명을 대

상으로 2004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행복에 기여하는 요인을 조사하여 구명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보면 2004년도와 2011년도 연구 모두에서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명된 요인은 ‘가정생활만족도’와 ‘자아성숙도’, ‘건강’의 3가지 요인이었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2). 이 연구는 ‘성숙한 방어기제’ 및 ‘지속적인 안정적 대인관계’의 유무가 행복한 삶 성취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한 베일런트(Vaillant)교수의 30년 종단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아동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삶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인간의 기본욕구인 존재욕구(건강), 관계욕구(가정생활만족도), 성장욕구(자아성숙도)의 충족과 다르지 않고, 이는 식, 의, 주생활을 통한 건강교육, 발달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자기 이해와 성장, 그리고 대인관계의 출발점인 가정생활의 만족 향상을 다루어 온 가정교과의 교육내용임을 알 수 있다.

가정교육이 행복교육과 연계되어 ‘행복’을 배우는 교과라든가, 가정교과는 ‘행복교과’라는 주장은 가정교과가 단순한 기능교과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해 온 여러 가정교육학 전공 교수와 교사들 사이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회자되어 왔다. 물론 가정교과를 ‘행복교과’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가정교육이 행복의 역량을 함양하는 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선언적 주장(Wang, Kwon, Kim, & Jeong, 2011; Wang, 2011)에서 비롯되었다. 이 주장은 ‘단순 기능교과’라 폄하되어 온 가정교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려는 의도와,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행복 패러다임을 교과의 철학에 수용하여,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회자되어 온 행복교과로서의 성격을 교육과정이라는 공식적 문서를 통하여 공고히 하려한 선언적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과정 고시 이전에 여러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복교육을 주창하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긍정심리학의 학문적 패러다임의 물결이 세도하면서, 행복교육으로서의 가정교과의 성격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Baek 과 Wang(2012)의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교육의 당면 집단원들이 가정교과를 비록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적 당위성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과’, 또는 ‘독자적인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구축과 적극적 홍보가 요구되는 교과’라고 인식하지만, ‘인간의 성숙과 사회적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실천교과’이며,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주도하는 생활문화 교과’이며, ‘행복한 삶의 설계에 기여하는 행복 디자인 교과’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교과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가 될 만한 교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 가정교육이 행복한 삶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여러 역량 중, 행복패러다임을 주장하는 긍정심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지적한 ‘감사성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학교 현장 연구가 있다(Wang & Kim, 2010; Wang & Kim, 2011). 이들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의생활교육이 중학생들의 감사성향을 함양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는데, 의생활 관련 수업 이후에 나의 의류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5주간의 5차시의 매 수업마다 3가지씩 적도록 하는 단순한 활동을 통하여 중학생들의 감사성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의 항목은 사전과 사후 검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서, 의생활영역이 기능 외에 긍정적인 정서, 특히 학생의 감사성향을 향상시키면서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교육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긍정적인 감정이나 사람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우울이나 근심, 질투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적다(Emmons & McCullough, 2003)는 것을 고려하면, 가정과 수업을 통한 감사성향의 함양은 가정교육이 행복교육과 연계됨을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해주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인 공감능력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으며(Redmond, 1989), 특히 청소년기의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력 있는 변인(Kim, 2002)이다. 공감훈련은 사회적 능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An, 2007)를 반영할 때, 가정과수업을 통한 공감능력의 함양은 청소년의 행복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im(2013)은 중학교 2학년의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공감 능력 함양을 중심으로 한 4주간의 10차시 가정과수업이 중학생의 인지공감능력 및 정서공감능력 모두를 함양하는데 유의한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하였다. Vaillant(2010)는 의미있고 원만한 대인관계가 행복의 주요 조건임을 장기 종단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였는데, 대인관계의 핵심이 되는 공감능력이 가정과수업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음을 규명한 이 연구의 성과는 가정과교육이 행복과 연계되는 중요한 교과임을 시사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과교육은 “가족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각종 범죄 및 자연 재해로 인해 정신 건강이 현저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인간애와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다루어 학습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인성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고시하였다. 실제로 가정과교육을 통하여 학습자의 친사회적 행동이 향상되는가를 Jo(2012)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가정과 ‘가족돌보기’ 단원의 수업 전후를 중심으로 실험대상 학생들은 친사회적행동의 모든 하위 요인(도와주기, 자선, 친절, 희생, 협동, 책임감, 동정, 관심, 위로, 연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Seligman과 Csikszentmihalyi (2000) 및 Peterson(2010)이 분류한 인간의 성격적 강점에서는 이들 친사회적 행동이 매우 중요한 변인들인데, 가정과 수업 전후를 중심으로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이 의미있는 변화를 보인다는 결과는 가정과수업이 학습자의 행복의 역량 함양에 매우 적절한 교과임을 시사해주었다. 또, Jeong(2013)은 가정환경, 자아존중감, 자신의 능력,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주관적 행복감이 가정과 수업을 통하여 변화하는가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현장 실험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중학교 1학년의 ‘청소년의 이해’ 단원에 대한 4주간의 10차시의 수업 전후를 중심으로 이들 4개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 영역에서의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자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 단원의 가정과수업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면서 자아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가정교과의 수업이 청소년의 행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규명한 연구들이다. M. H. Park (2012)은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Wang 외(2011)와 Wang(2011)이 “가정교과는 행복교과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선언적으로 주장한 것에 기반하여, 가정교육과 교수 및 가정과 교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가정교과에 행복 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초기 연구들을 시작으로 더 많은 경험적 자료들이 축적되어간다면, 행복교육의 핵심교과인 가정과교육의 성격이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V. 가정과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한 이론적 탐색: Alderfer의 ERG이론의 적용

Lee와 Kwak(2013)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과교육의 목표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오랫동안 신봉되어 온 교과 그 자체의 가치 때문에 교과를 가르쳐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교과가 핵심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입장으로 선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교과가 핵심역량을 기르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고시하였다. 이에 대해 Yang과 Yoo(2015)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이 가정과교육에서 추구되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과 관련한 부분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가정과교육 분야에서의 핵심역량 관련 연구의 역사가 길지 않고, 교육과정 개발에 의한 정부의 지침으로 시작된 연구 과정을 고려하면,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핵심역량은 선언적 주장이라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충분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논거들이 더 필요한 것이지,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사료된다. 다만, 가정교과는 청소년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교과’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틀의 하나가 청소년의 ‘생활’이었고, 가정과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한 준거의 하나로 ‘생활’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행복한 삶’을 교과의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이론적 준거로 ‘행복한 삶의 추구’와 ‘생활’이라는 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우선, 생활은 가정과 사회와의 상호성이 더욱 커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생활’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

인 ‘삶’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삶은 나→가족→사회로 확장되는 학습자의 관심 영역의 확장을 반영한다. 또 삶의 틀에 ‘일’을 추가하여, 나→가족→사회→일의 범주를 적용한다. OECD 국가간 행복도 조사를 위한 척도인 BLI 지표<sup>1)</sup>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강조하여 ‘일’을 삶의 틀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지표를 반영하였다. 다만 문제는 행복과 관련한 인간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자별로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가정교과교육의 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복한 삶의 성취’를 위해 어떤 이론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인간 행복의 이론 중에서 인간의 행복의 기본 조건인 생존, 관계, 성장을 이론에서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행복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역량이라는, ‘인간의 자율성’을 수용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의 이론인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엘더퍼의 ERG이론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매슬로우의 이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이론이다<sup>2)</sup>. ERG이론은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수준을 3단계로 수정한 욕구체계이론을 제시했는데, 그가 제시하고 있는 3단계의 욕구란 존재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이다. ‘존재욕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본적 욕구로서 다양한 형태의 물질적 및 생리적 욕구이며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여기에는 매슬로우가 말한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가족의 상황과 관련

시켜 보면 재산, 월급,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의, 식, 주생활 환경 등의 안전한 삶을 위한 조건들이 포함된다. ‘관계욕구’는 개인 위주의 인간관계나 사회 환경 등과 관련한 욕구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사회관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우호적인 타인과의 관계가 이 욕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매슬로우의 사회적 욕구 군에 해당되는 모든 욕구와 안전욕구, 존경욕구군에 속하는 것 중의 일부도 엘더퍼의 관계욕구에 해당된다. ‘성장욕구’는 개인의 창조와 성장을 위한 것과 관계되는 모든 욕구들이 포함된다. 이 욕구의 범주에는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의 욕구와 존경욕구군의 일부 요인이 해당된다.

이에 이 연구는 ‘삶’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교과교육의 성격을 고려하고, ‘행복한 삶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가정교과교육의 목표를 포괄하여, ‘삶’의 4가지 범위와, 엘더퍼가 주장하는 3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대응시켜 만든 2차원의 교육과정 개발의 이론적 틀을 가정교과교육을 재구조화 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제안한다. 2차원 상의 총 12개의 각 칸에, 전통적인 가정학의 5대 내용학 영역들인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 ‘아동 및 가족생활’, ‘소비생활’의 교육내용과 ‘가정생활복지’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반영된 ‘안전교육’의 내용을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의 교육내용을 2차원의 재구조화된 틀에 배치하면 다음의 <Table 4>와 같은 기본적인 재구조화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이 2차원의 이론적인 재구조화 틀에서 강조하는 지향점은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치우침이 없는 균형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Table 4. Home Economics Education Restructuring and core concepts is applied to ERG Theory

| Human needs                 | oneself    | family     | community | work           |
|-----------------------------|------------|------------|-----------|----------------|
| 존재욕구(식, 의, 주의 기본 욕구, 안전 욕구) | 건강생활, 안전소비 | 건강생활, 안전소비 | 안전생활      | 자사관리           |
| 관계욕구(대인관계)                  | 자기이해와 관리   | 건강가정       | 이웃관계      | 좋은 친구 및 동료관계   |
| 성장욕구(생애설계)                  | 진로와 생애설계   | 일·가정 양립 방안 | 가정생활복지 기관 | 일·가정 양립의 복지 체계 |

1) BLI 지표 Better Life Index로 OECD에서 매년 각국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지표들이다. 여기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지표로 활용된다.  
 2) ERG이론은 두 가지 관점에서 Maslow의 욕구계층이론과 다르게 욕구구조에 있어 개인차의 다양성을 들이면서 더욱 융통성이 있는 이론으로 설명된다. 첫째, Maslow의 이론에서는 다섯 가지 욕구 중에서 우세한 욕구가 지배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Alderfer는 일정한 시점에서 세 욕구의 강도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을 하거나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월급이 적어 방세나 음식비를 걱정하는 개인이 지적인 자극을 위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거나 친구와의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Alderfer는 한 하위욕구가 만족될수록 상위 욕구로 진행해 간다는 Maslow의 만족-진행과정에 덧붙여서 좌절-퇴행과정도 인정하고 있다. 즉, 상위욕구인 성장욕구를 추구하다가 이것이 좌절되면 하위욕구인 관계욕구가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이 확실치 않은 학생은(성장욕구), 입학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관계의 욕구(봉사활동)를 만족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이다.

앨터퍼는 인간의 삶의 욕구가 위계적으로 발달하지만, 퇴행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2개의 욕구를 지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삶의 여러 측면이 균형적으로 세워졌을 때에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한 <Table 4>의 재구조화 틀이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균형적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삶의 위협이 되는 '중독'(addiction)의 개념이 가정교육의 핵심개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건강생활을 위협하는 중독증상은 탄수화물중독, 알코올 중독, 등의 내용을 비롯하여 건강 염려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또한 소비중독의 내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관계성에서의 중독은 더욱 치명적이어서 극단의 이기성, 집착, 성중독, 일중독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균형과 관련한 '중독'의 개념에 대한 탐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연계를 위한 추후 연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학습자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면, 학습자의 삶을 기반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정교육이 담당하는 전체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적 가치는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최근의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에서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습자가 함양하기를 기대하는 역량은 무엇인가?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표방하는 행복교육의 슬로건은 우리 학습자가 길러야 하는 역량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우선 행복에 대한 정의를 찾아야 한다. 다양한 행복론이 가능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하며, 또 인간사회에 사는 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의 과제는 "먹고, 살고, 사랑하며..."라는 삶 중심의 과제이다. 먹는 것, 사는 것, 사랑하는 문제, 또는 갈등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인간이며, 인간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당면하는 반복적인 문제들이다. 이를 가정교육의 실천비판적 패러다임에서는 항구적인 문제라고 표현하지만(Chae et al., 2011), 어떤 용어적 표현이든

이같은 다양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개발해 오는 것에 목표를 두어 온 것이 생활교과인 가정교과였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삶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융·복합적 지식과 그에 기반한 융·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이 또한 필요하다. 가정교과는 행복한 삶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이며, 융·복합적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삶의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훈련의 장을 제공하면서 미래사회의 가장 필요한 인재상인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해 가는 '행복한 인간'을 기르는 핵심교과라고 할 수 있다.

학교사회가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사회의 변화에서 학습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여 온전한 삶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으로 변화하기를 지향한다면,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삶의 성취에 도움을 주는 역량을 키우는 혁명적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의 구성적 지능에 집중한 교육에서 상황적 지능이나 경험적 지능의 개발에도 동일한 관심을 주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가정교과가 책무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극도의 기술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제도화된 일터에서 해방된 인간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연대의식을 중심으로 한 인간애를 더욱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친밀한 정서능력'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능력의 개발과 같은 '정서역량' 강화에 교육과정을 집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제 1차적 사회집단인 가족에서 이러한 정서역량을 개발하게 되므로, 가족을 기반으로 한 '삶'을 다루는 가정교과에서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의 변화로 초래된 인간사회의 변화는 '삶 중심의 교과'인 가정교과, 그리고 '행복추구 역량'을 개발하는 '행복 교과'로서의 가정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재인식하도록 권인하였다. 가정이나 가족 외부에서 촉발된 변화로 재인식된 가정교과의 교육적 가치를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관점에 적절하게 재구조화하기 위해 삶의 4가지 기본적인 틀인 자신, 가족, 지역 사회, 일을 하나의 틀로, 또 Alderfer의 ERG이론이 주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3가지 욕구인 존재, 관계성, 성장의 욕구를 또 다른 틀로 한 2차원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인간 삶의 행복은 존재, 관계 강화, 성장의 욕구를 향해 확대해 가며, 여기에서의 성장은 나와 가족, 지역사회, 일의 터전에서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2차원의 틀은 가정교육의 성격으로 재인식된 '삶

중심 교과'와 '행복 교과'를 모두 포괄하는 이론적 틀로 평가할 수 있다. 후속 연구는 이 연구에서 개발하여 제안한 '삶'과 '행복추구의 단계적 욕구'로 구성된 2차원의 틀에 가정교과의 전통적인 교육내용을 연계하고, 그 적합성을 검증하는 이론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이러한 이론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가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n, C. H. (2007). The effect of an empathy training program on social competence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Yonsei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Korea.
- Baek, M. K. & Wang, S. S. (2012).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recognition measurement of Home Economics Subjec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2), 101-116.
- Chae, J. H., & Lee, S. H. & Yoo, T. M. (2010). Contribution and Futur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4), 139-154.
- Chae, J. H., & Park, M. J. & Kim, S. G., & Han J. (2011). Instruction to Home Economics Education. Seoul, Kyomunsa.
- Chosun Ilbo. (2014). Retrieved February. 28, 2014, from <http://www.chosun.com/>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 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77-389.
- Han, J. R. (2005). Educational Gerontology. Seoul, Hakjisa.
- Jang, J. H. (2014). 2030 미래사회 및 직업생활의 변화와 교육적 접근 방안. The Autumn Conference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of 2014, pp 35-51.
- Jeon, S. K. (2014). The plan for development of subsequent curriculum based on the section 'family life' of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from elementary and secondary courses and key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4), 35-50.
- Jeong, J. W. (2013). The Influenc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Subjective Happiness : with priority given to the unit 「Understanding of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 Jeong, H. S. (2013). Family Life Education. Seoul, ShinJeong.
- Jeong, O. B. (2015). Child Development. Seoul, Hakjisa.
- Jo, S. M. (2012). The Effects on the Prosocial Behaviors in Instruction of the unit, 「Caring of Family」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in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 Jun, M. K. & Oh, K. S. (2010). Education and Application for Low Fertility·Aged Society in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95-116.
- Kim, S. H. (2013). The Influenc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n Middle Students' Developing Empathy- with priority given to the unit 「understanding of family values」 for middle school -.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 Kim, J. H. (2002). The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dolescent's Empathy, and Their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to Frien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 학생 7대 안전교육 표준안 강사요원 연수 강의 자료집.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2). *KRIVET Issue Brief*, vol. 22.
- Kwak, B. S. (2014). 미래사회의 인재상과 새 교육과정의 방향, The Summer Conference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of 2014, pp 13-30.
- Kwon, S. M. (2008). Positive psychology. Seoul, Hakjisa.
- Lee, K. W., Baek, K. S., & Lee, S. M. (2013). 미래사회 국가 교육

- 과정의 방향. 2020 한국 초·중등교육의 향방과 과제-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Seoul, HakjiSa. 61-82.
- Lee, K. H. & Kwak, Y. S. (2013). 학습자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2020 한국 초·중등교육의 향방과 과제-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Seoul, HakjiSa. 83-106.
- Lyubomirsky, S. (2007). How to be happy. Oh, H. K. translated. Seoul. JiSik Nomad.
- Noddings, N. (2007). *Happiness and Education*. Lee J. H. translated. Seou. Hak yi Dang.
- OECD(2015).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 Peterson, C. (2010).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Moon, Y. R. et al. translated. Seoul. Moolpure.
- Park, M. S. (2012). 공동체를 위한 소비생활교육. The Winter Conference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of 2012. pp77-89.
- Park, M. H. (2012).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Happiness in the School Curriculum : Focusing to enhance Capabilities of Happiness o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4), 117-132.
-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s of empathu (decentering) in human relations. *Human Relations*, Vol. 42 No. 4, pp. 593-606.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1-14.
- Vaillant, G. (2010). Conditions for happiness: What Makes Us Happy?. Lee D. N. translated. Seoul. Frontier.
- Wang, S. S. (2003). Document Research to Identify the Goal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2), 79-99.
- \_\_\_\_\_ (2009). Analysis of Family Life Education in Korean Public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5(2), 249-274.
- \_\_\_\_\_ (2011). 가정과학 교육과정 개정 시안-가정과학 시안 발표. 실과(기술·가정) 공통교과 및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토론회 자료집.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pp129-142.
- \_\_\_\_\_ (2013a). 한국사회: 건강가정에서 길을 찾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활과학의 기여: 건강가정 및 행복의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교육의 행복교육안 탐색, The Autumn Conference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of 2013(66th), pp 265-284.
- \_\_\_\_\_ (2013b). 실용적 지능과 행복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정 교과서의 미래 방향. 교과서 연구, 73호, pp39-43.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 Wang, S. S. & Kim, S. G. (2010). Character education and Application for cultivating gratitude disposition and Car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Summer Conference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of 2010. pp133-159
- \_\_\_\_\_ (2011). The Character educ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focus on Gratitude and Caring.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7(1), 117-142.
- Wang, S. S., & Kwon, Y. J., Kim, J. W., & Jeong, M. K.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술·가정교과의 가정과교육 분야 교육과정 개발(안). 2011'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제 1차 워크숍 자료집.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pp 70-91.
- Wang, S. S., & Nam, S. J. (2008). Preliminary Home Economics Teachers' Image of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4), 205-221.
- Wang, S. S., & Lim, Y. M. (2014). The effects of population education on the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4), 147-164.
- Yang, J. S. & Yoo, T. M. (2015). Relations of Key Competencies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3), 1-18.
- 교육과학기술부(2011).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0) .

교육과학기술부(2015).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0) .

### <국문요약>

이 연구는 환경 스캐닝의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미래사회의 변화들을 분석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로 야기된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대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 미래 사회의 변화로 야기된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가정과 교육이 어떤 교육적 가치를 발휘하여 담보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가정과교육의 성격이 가진 교육적 가치와 그 당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과교육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래의 주요한 변화는 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2) 예측불가능한 각종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한 생활 환경의 위험성 증대, 3)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급진전, 4) 국경없는 경제사회의 도래와 직업의 변화, 5) 북한의 변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미래변화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증폭시켜 왔지만, 우리 교육은 여전히 지육교육에 치중하여 구성적 지능 계발에 치중하고 있으며, 정서역량을 학습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미래사회의 유연한 인성을 가진 개인을 양성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가정과교육은 현재 우리 교육이 보이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교육적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가진 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가정과교육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실용적 지능 계발에 유리한 인간의 '삶' 전반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삶 중심의 생활교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가정교과는 감사성향, 공감능력,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등의 다양한 행복추구역량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행복 중심 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삶 중심 교과'의 성격과 '행복 교과'의 성격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과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해 삶의 틀(나, 가족, 지역사회, 일)과 Alderfer의 ERG 이론에서 제시한 인간의 위계적 욕구(존재, 관계, 성장)를 각각의 축으로 한 2차원의 이론적 틀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재구조화의 이론적 틀(frame)을 재검토하고 방향을 실증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 논문접수일자: 2016년 5월 30일, 논문심사일자: 2016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9월 22일